

	보 도 자 료	
	작성	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하수정 소장(044-960-0633)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이차희 부연구위원(044-960-0229)
	배포	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(044-960-0443)
보도일시	■ 즉시 보도 가능	

“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은 일자리, 교육·주거환경 등도 중요”
“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 맞춤형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 요구”
 국토研, 「균형발전 모니터링 & 이슈 Brief」 제11호 발간

-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은 「균형발전 모니터링&이슈 Brief」 제11호를 발간했다.
- 이번 호는 ‘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’을 주제로 청년의 지역이동 패턴과 핵심 요인 분석 및 지역정착 과정에서의 인식 조사에 기초하여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.
 - * 청년의 지역이동 패턴과 이동·정착의 핵심 요인 및 지역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,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

[청년이 체감하는 삶과 일자리]

- (청년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)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최하위이며, 취업을 포기한 청년 니트(NEET, Not in Education, Employment, and Training) 비율도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, 이탈리아, 멕시코에 이은 4위 수준이다.
- (첫 취업 시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)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, 대학 졸업 이후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.
- 청년과 연관된 뉴스키워드 분석 결과(2010년, 2020년), 일자리 관련 키워드가 꾸준히 상위로 노출되고 있으며, 최근 일자리 외에 서울, 부동산 키워드가 상위로 노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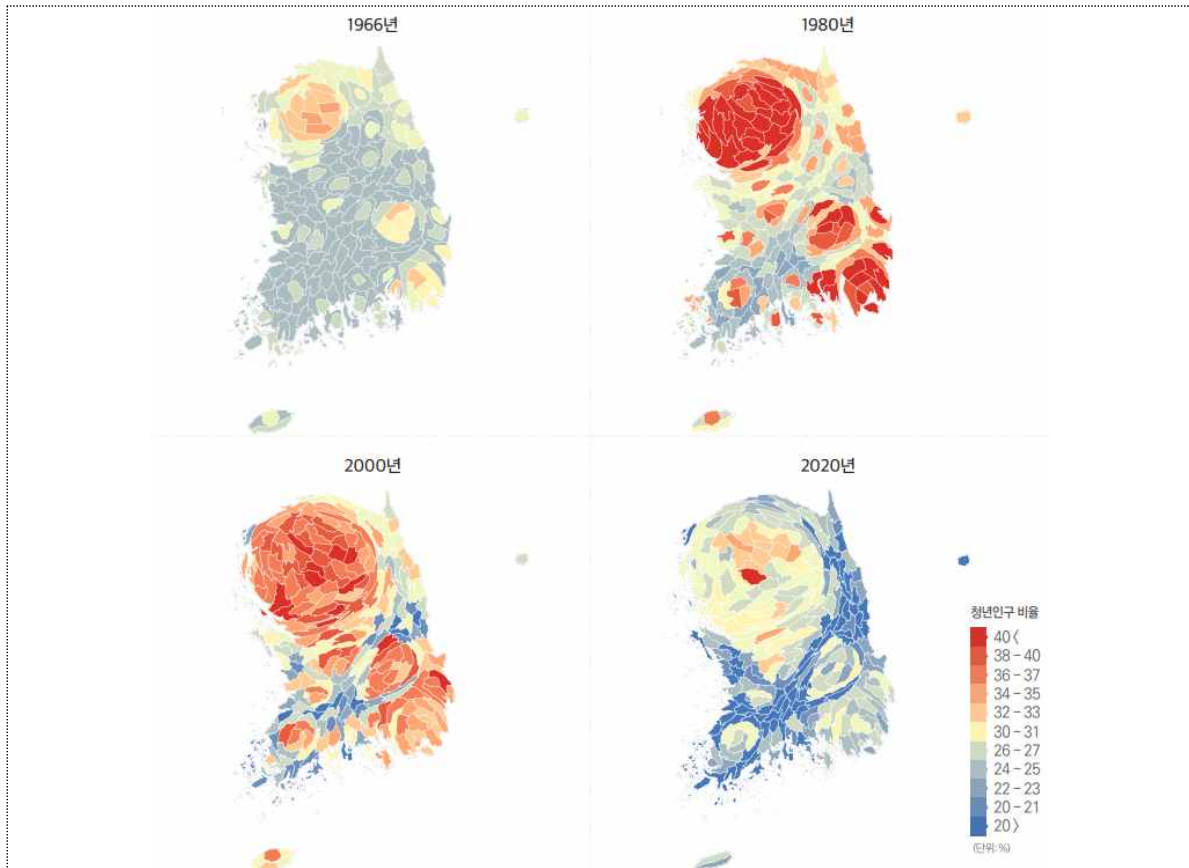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청년과의 연관 뉴스키워드 분석



- (주) 1. 2021~2022년은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본 브리프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
 2. 빅카인즈(전국일간지 등 54개 언론사의 뉴스기사를 보유)를 활용하여 ‘청년’과 ‘신조어’가 포함된 뉴스기사를 검색한 결과, 2010년 95건, 2020년 205건 기사가 도출되었음
 (자료) 빅카인즈를 통해 추출된 상위 100위 키워드를 대상으로 연구진 작성

- 수도권 및 광역시로의 청년이동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나, 2000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.

<그림 2> 청년인구 비율의 연도별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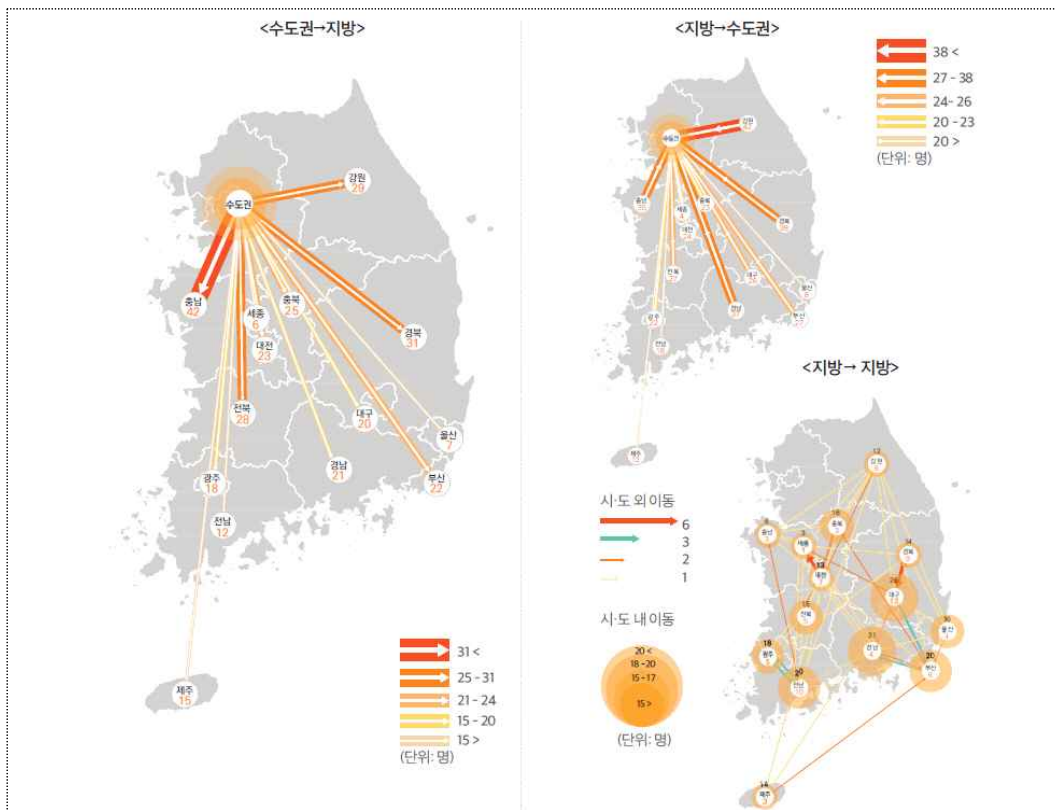
- (주) 청년인구는 인구총조사(전수부분)의 시·군·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만 19세~39세를 대상으로 함
 (자료)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(전수부분)」를 토대로 연구진·신휴석 작성

아래 분석은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,000명을 '수도권→지방(321명)', '지방→수도권(359명)', '지방→지방(320명)'으로 유형화하고 지역이동, 지역 정착, 지역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

[청년의 지역이동]

- (수도권과 인접지역 간 이동 활발) 청년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('수도권→지방' 유형)에서는 충남으로의 이동이,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('지방→수도권' 유형)는 강원으로부터의 이동이 두드러진다.
- '수도권→지방' 유형에서는 충남(42명)·경북(31명)·강원(29명)·전북(28명)으로의 이동이, '지방→수도권' 유형에서는 강원(42명)·경북(38명)·경남(37명)·충남(35명)으로부터의 이동이 많이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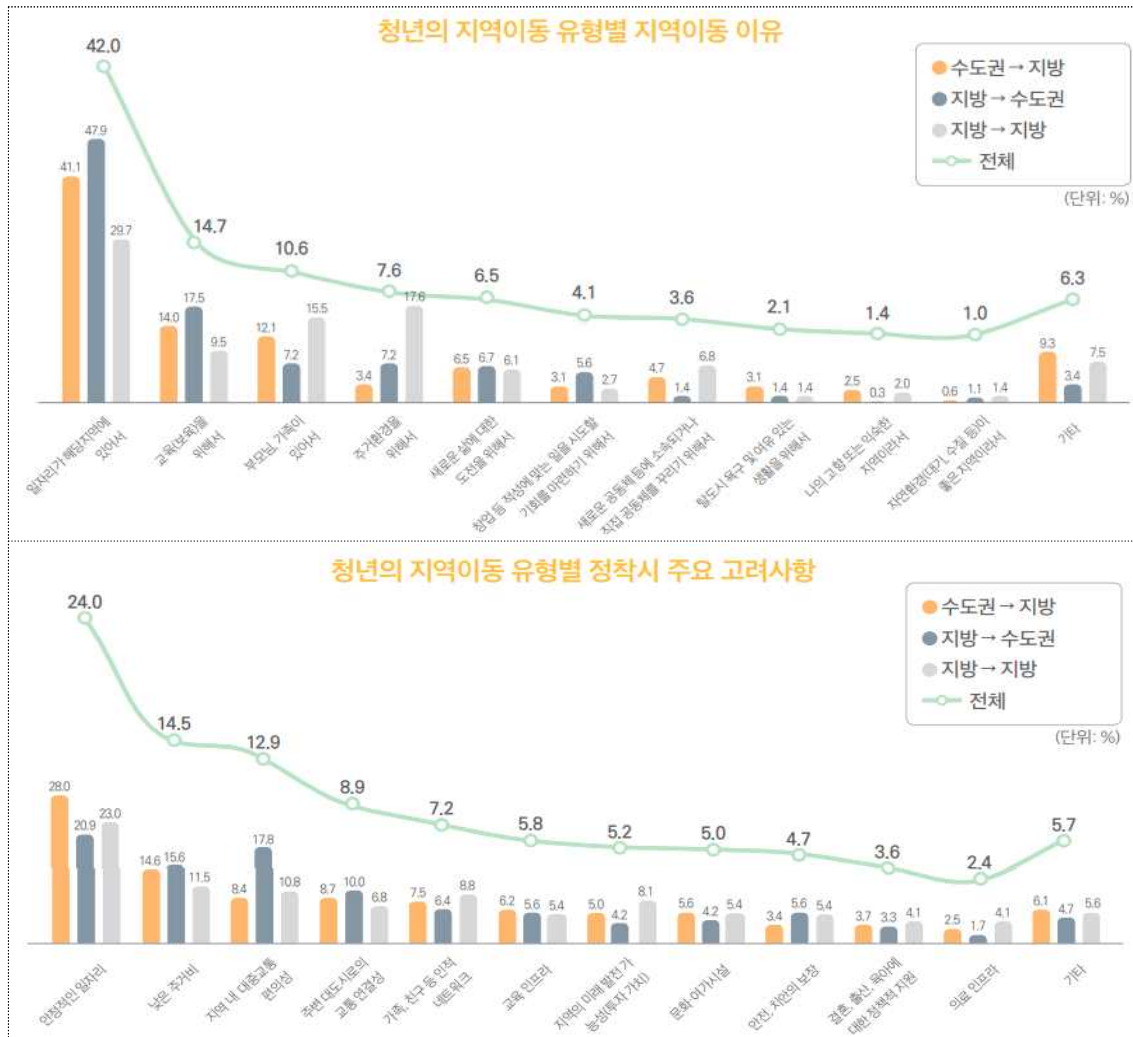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청년의 지역이동 유형별 특성



(주) 청년 1,000명 중 거주지역 기입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는 일부 제외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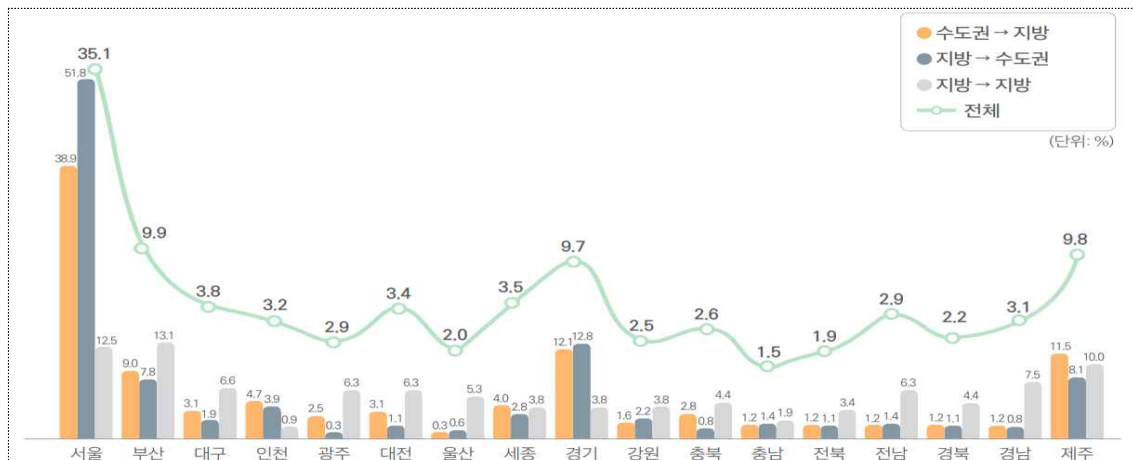
- (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은 일자리) 모든 지역이동 유형에서 청년이 이동하는 압도적 요인은 '일자리'로 나타났으며, '수도권→지방' 유형 및 '지방→수도권' 유형에서는 '교육'이, '지방→지방' 유형에서는 '주거환경'이 '일자리'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.
-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뿐 아니라 '주거 비용'과 '대중교통 편의성'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그림 4> 청년의 지역이동 유형별 지역이동 이유(상)와 정착시 주요 고려사항(하)



□ (미래 살고 싶은 지역은 서울) 전체 청년 중 1/3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,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(‘지방→지방’ 유형)의 경우 부산 응답 비율이 서울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이동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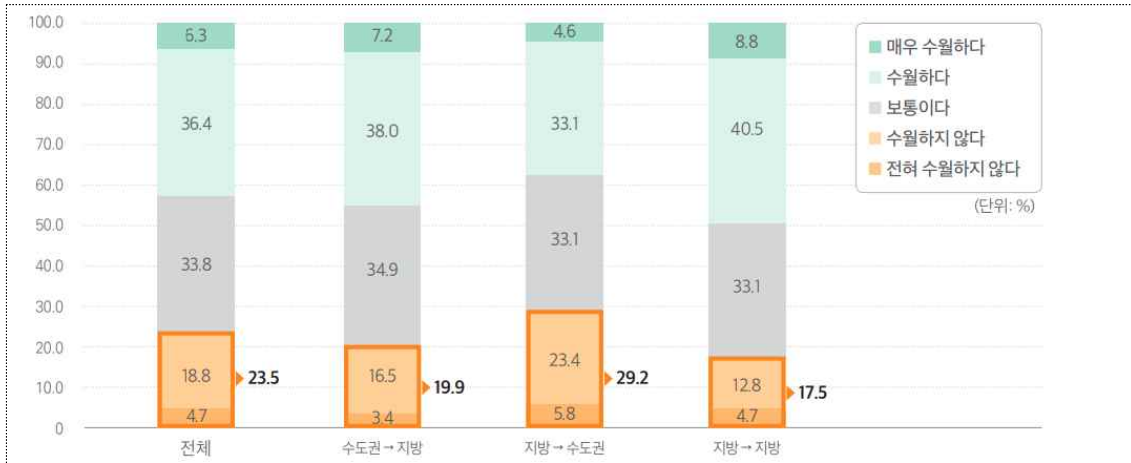
<그림 5> 청년의 지역이동 유형별 미래 살고 싶은 지역



[청년의 지역정착 및 정서]

- (수도권 거주자가 거주공간 마련에 더 큰 어려움) 거주공간 마련에 느끼는 어려움은 ‘지방→ 수도권’ 이동 청년이 ‘수도권→지방’, ‘지방→지방’ 이동 청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<그림 6> 청년의 이주 초기 거주공간 마련의 곤란 수준



- (정보공유와 친교 목적으로 지역 참여) 지역사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(35.7%)고 답한 청년들의 참여 목적을 조사한 결과 지역정보 공유, 또래집단 교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, ‘수도권→지방’ 이동 청년의 경우 또래집단 교류 목적이 지역정보 공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.

<그림 7> 청년의 지역이동 유형별 지역사회 참여 동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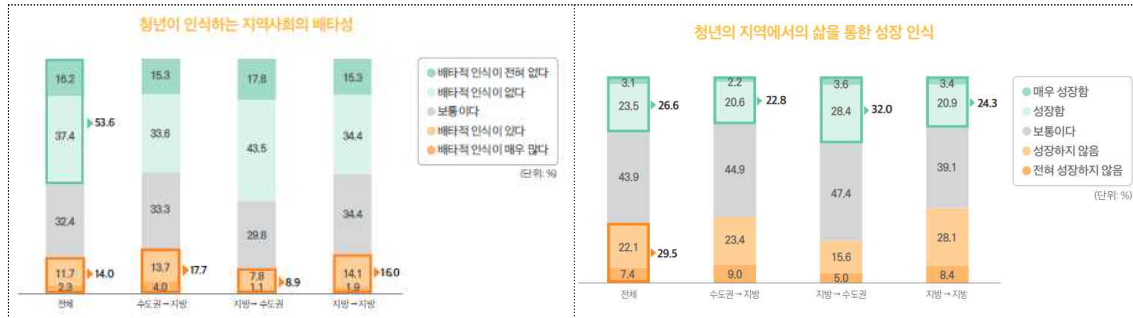


- (배타성은 지방에서, 성장 인식은 수도권에서 강함) ‘수도권→지방’, ‘지방→지방’ 유형의 지역이동을 경험한 청년이 지역 배타성을 더 강하게 느끼며, ‘지방→수도권’으로 이동한 청년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절반 이상의 청년은 지역의 배타적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, ‘수도권→지방’,

‘지방→지방’ 유형 청년과 직업이 자영업자·프리랜서인 청년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배타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‘지방→수도권’ 유형은 ‘수도권→지방’, ‘지방→지방’ 유형에 비해 지역의 삶을 통해 성장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, 직업군별로 보면 대학(원)생이 직장인에 비해 성장한다고 인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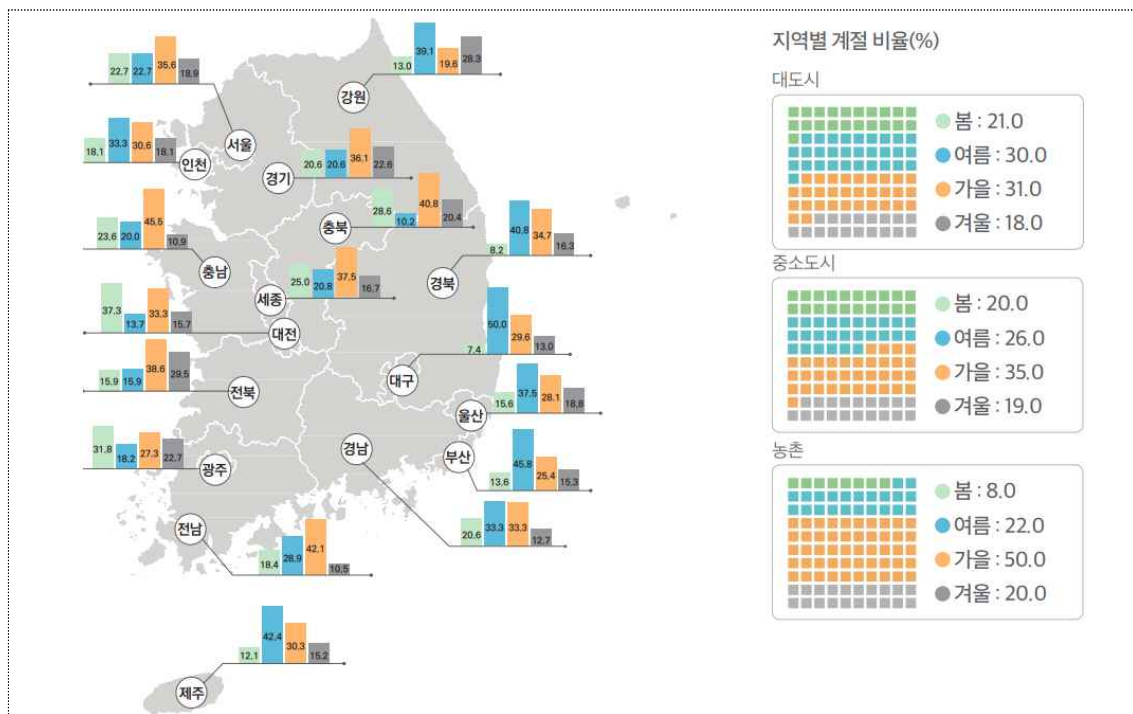
<그림 8> 청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배타성(좌)과 성장 인식(우)



[청년이 바라보는 지역 이미지]

- (청년은 지역에서 가을, 클래식, 원색을 연상) 청년이 현 거주지역에서 연상하는 계절은 가을, 여름, 봄 순으로, 지역에서 연상하는 음악장르는 클래식, 팝, 힙합 순으로, 지역과 어울리는 색깔은 원색, 파스텔, 흑백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대도시-중·소도시-농촌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다.

<그림 9> 시·도별 청년의 거주지역에 어울리는 계절(대표 예시)



[시사점]

- 균형발전 정책에서 취업 등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낮고 활력이 떨어지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될 필요가 있으며, 지역이동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가 상이하므로 지역이동 유형에 맞춘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.
- 특히, 일자리는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이며 첫 취업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및 대학 특성화, 인재 배출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.
- 교육, 주거환경, 교통 등의 편의성도 일자리와 함께 청년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주거 여건, 교통 편의성, 다양한 교육 기회 등이 제공되는 지역 혁신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.
-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정책의 체감도가 낮으며, 또래집단 교류 및 네트워킹 등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므로 일자리·주거 등 하드웨어적 접근을 넘어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식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
이유설 행정원(☎044-960-0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